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노무현 대통령 방중외교



노무현 대통령 방중외교

발행처 · 국정홍보처 www.allim.go.kr | 발행인 · 조영동
편집제작 ·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www.ktv.go.kr/news.go.kr
발행일 · 2003. 7. 25 | 인쇄 · 삼성문화인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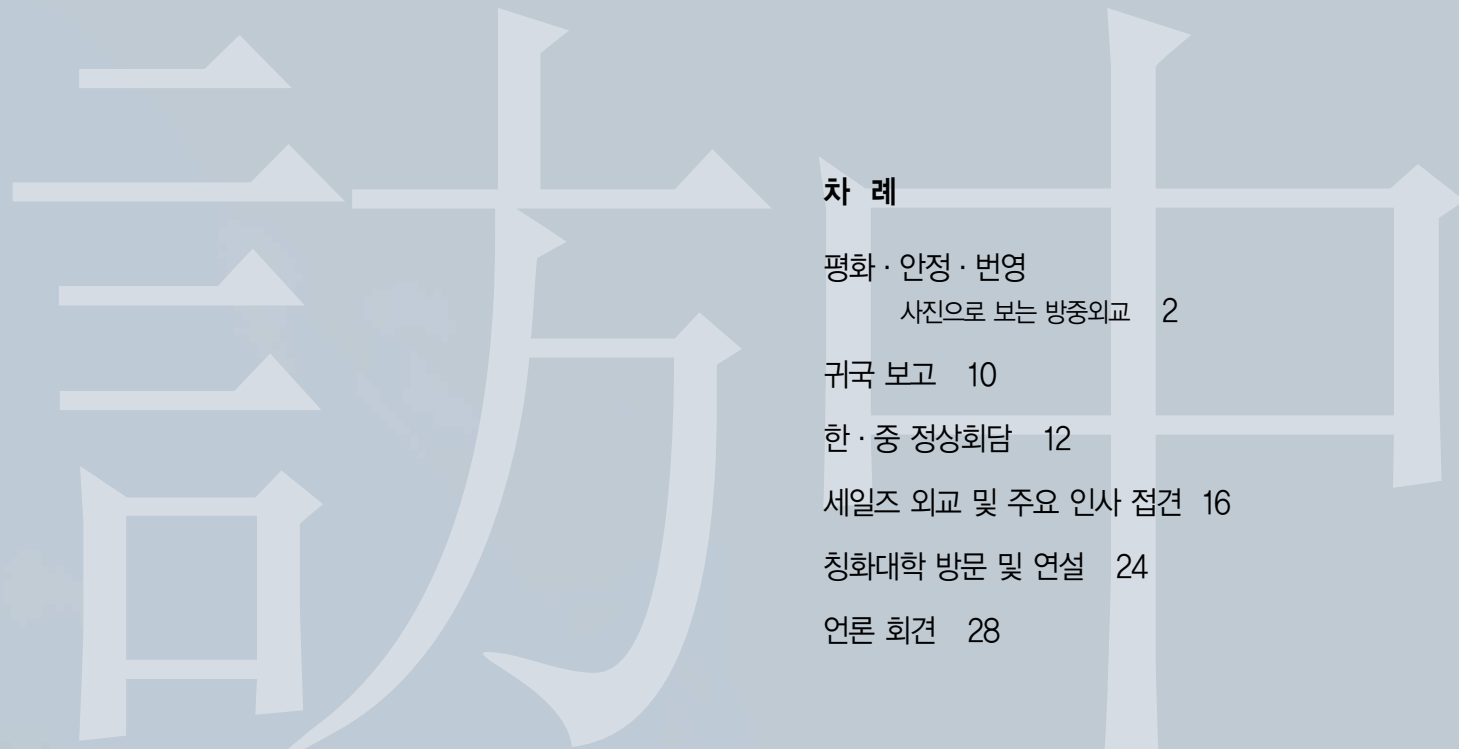


2003. 7. 7 ~ 10

국정홍보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차 례

- 평화·안정·번영
사진으로 보는 방중외교 2
- 귀국 보고 10
- 한·중 정상회담 12
- 세일즈 외교 및 주요 인사 접견 16
- 칭화대학 방문 및 연설 24
- 언론 회견 28

평화·안정·번영

사진으로 보는 방중외교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

중국을 국빈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베이징 인민대회당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7. 7, 왼쪽)

노 대통령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과 경제·통상 협력 등 11개항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도출해 냈다. (위,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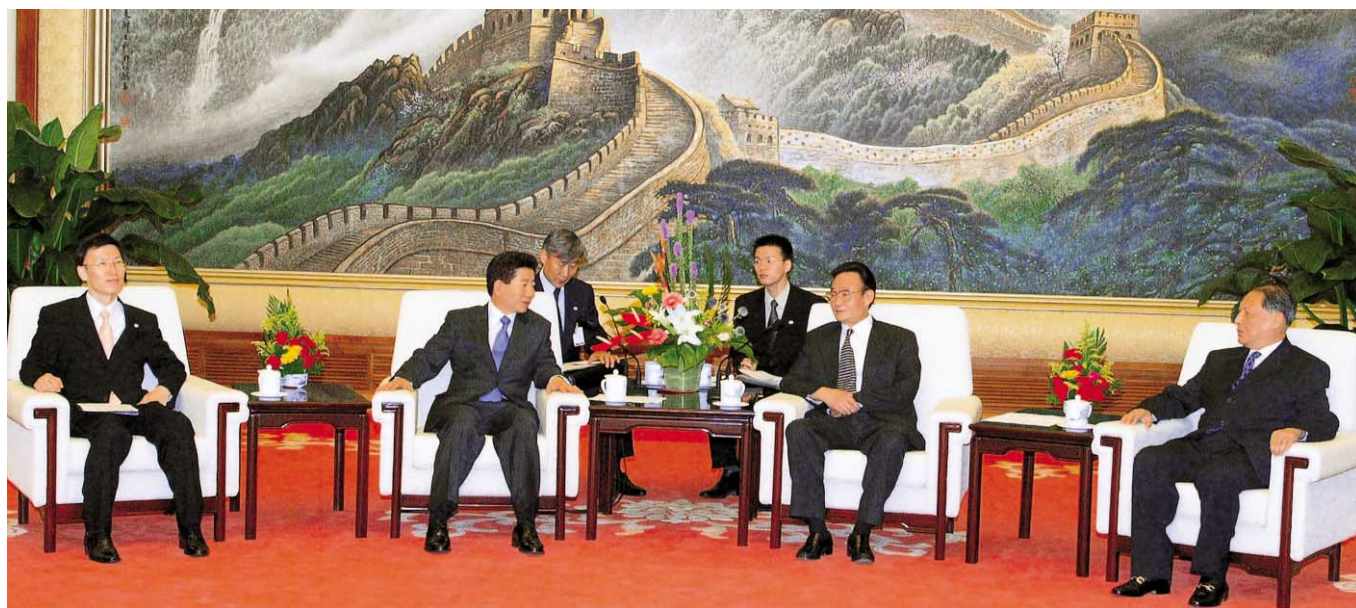
“미래지향적·호혜적 경제협력 강화”

노무현 대통령이 베이징 조어대의 방비원에서 열린 한·중 경제인 주최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7. 8, 왼쪽 위)

상하이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상하이 한·중 경제인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7. 10, 위)

노 대통령이 수행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7. 8, 왼쪽 아래)

조어대에서 중국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원자바오 총리와 면담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7. 8, 아래)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 최고 명문대학의 하나인 칭화대학을 방문,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중 협력'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7. 9, 왼쪽 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청홍 국가부주석을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설명했다. (7. 8, 오른쪽 위)

우방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양국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증진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7. 8, 왼쪽 아래)

중국 거주 한국인 단체와 기업 대표, 교육 관계자 등 우리 국민 4백여명과 함께 한 다과회에서 화동들로부터 꽃을 받고 있다. (7. 8, 오른쪽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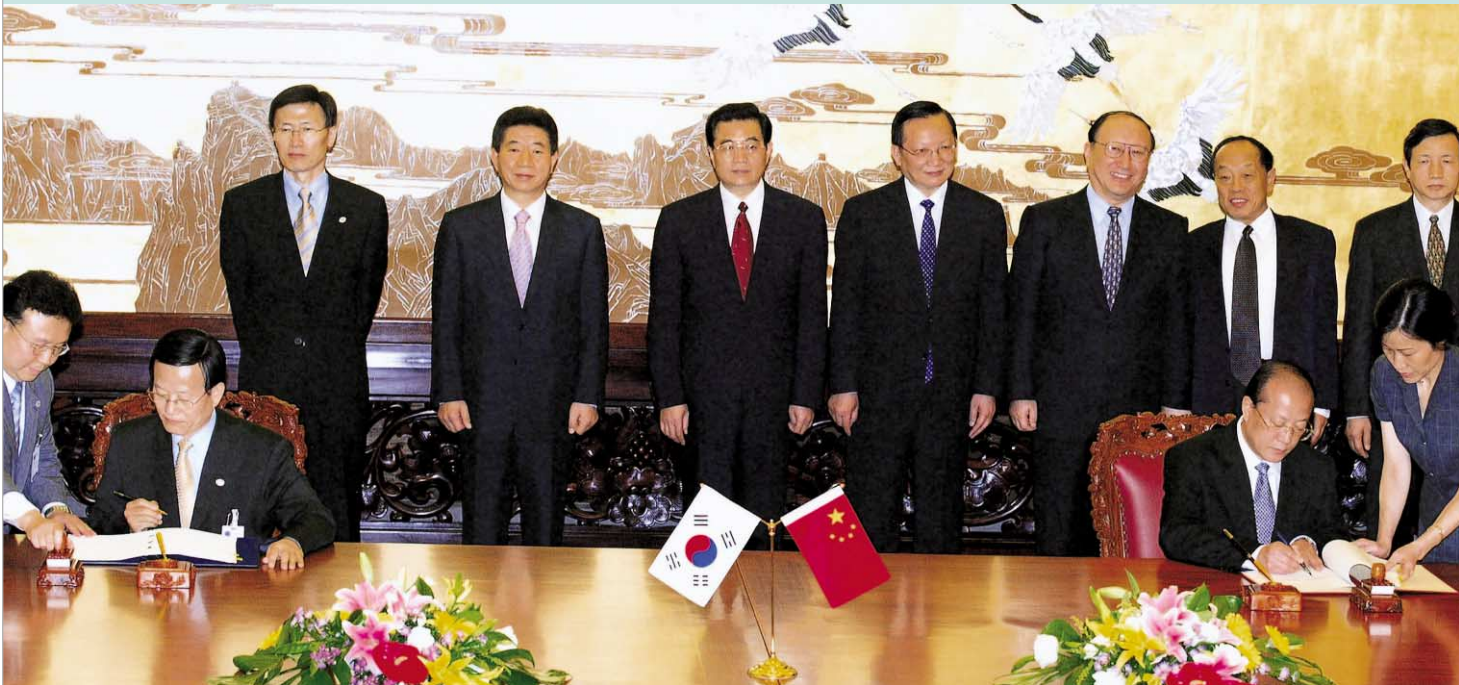
“동북아 시대 한걸음 앞당긴다”

노무현 대통령이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투사와 애국선열들의 뜻을 기린 후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7. 10, 왼쪽 위)

노 대통령 내외가 만리장성을 방문하고 있다. (7. 9, 왼쪽 아래)

상하이 경제발전의 중심지인 푸둥지구에 있는 동방명주탑 전망대에 올라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7. 10, 위)

노 대통령이 상하이 외탄 및 푸둥 금융개발지구의 야경을 시찰하고 있다. (7. 9, 아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나흘간의 중국 방문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큰 성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방문에는 세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여는 중요한 관건

첫째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번째는 경제와 통상관계의 확대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우리에게 제1의 투자대상국이자 제2의 수출시장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급속한 성장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려면 긴밀한 상호협력력이 필요합니다.

세번째 목표는 올해 새로 취임한 양국 지도자들간의 신뢰 구축입니다. 양국의 정상이 직접 만나서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강화시키는 것은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관건입니다.

저는 이러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소기의 성과

를 거둘 수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동행해 주신 경제인들과 국회의원들께서도 헌신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 저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의미있는 합의들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 내용들은 양국이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양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거듭 확인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중국은 지난 4월 ‘3자 대화’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이러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5월의 한·미 정상회담과 6월의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이 우리의 ‘평화번영정책’

을 적극 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은 ‘평화번영정책’ 적극 지지를 약속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은 외교와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인적교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종전의 ‘전면적 협력 관계’에서 한 단계 격상시킨 것입니다.

정부간의 교류는 물론 의회와 정당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민간 교류도 대폭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 정상간 전화 통화와 같은 상시적 대화채널을 긴밀히 유지해 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울러 이러한 교류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사·상사 사법공조 조약’ 등 세 개의 조약과 협정들을 체결했고, 청두(成都)에 우리 총영사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경제와 통상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CDMA 상용화와 자동차·금융·이동통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는 차세대 IT산업을 비롯해서 전력산업과 자원개발·환경·유통 분야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부 대개발 사업’과 황사방지 사업, 그리고 나노기술과 생명공학 같은 첨단분야에서도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준비에 한창입니다. 여기에도 우리 기업들의 참여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간 400억 달러 규모인 양국간 교역은 향후 5년 이내에 1,000억 달러 수준까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국간의 투자도 더욱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투자보장협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1일 항공 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한 협의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 경제의 급성장과 역동성 확인

이번에 저는 중국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인 칭화대학을 방문해서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래 세대의 주역들에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가자는 비전을 설명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이 한·중 관계와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대해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공감대를 넓혀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한·중간의 경제협력을 현장에서 이끌어 가는 주역은 양국의 기업인들입니다. 이분들과도 만나서 허심탄회하고 유익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국민들에게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국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5위의 경제력을 갖춘 13억 중국 국민이 미래를 향해서 뛰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중국 경제의 급성장과 역동성을 직접 확인하면서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고, 위기의식만 가질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자만해서도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기득권의 목소리에 묻혀서 우리가 개혁을 이루어 내지 못한다면 그동안에 쌓아 왔던 소중한 성공도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도전을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간다면, 중국의 개방과 성장은 우리에게 더 큰 시장,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아가 한·중간의 든든한 유대를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앞당겨서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는 동북아의 미래를 주목

지금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미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여와 야, 그리고 노와 사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북한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일본 방문에 이어서 이번 방문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예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명하고 유능해서 받은 예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국민 여러분께서 땀흘려 노력하신 결과 오늘 우리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만큼 대우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저의 귀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7월 7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참여정부 출범 후 최초의 한·중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북소청에서 열린 단독 및 동대청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정세, 양국 관계 발전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양국 관계를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에 대한 공동인식을 상호 확인하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해결 원칙을 확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은 용납할 수 없으며,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으로 폐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지난 4월 베이징 3자 회담을 개최한 중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중국 정부가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건설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국 정상은 관련 당사국들의 노력을 통해 베이징 3자 회담으로 형성된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갈

이했고,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평화변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고, 후진타오 주석은 "한국측의 이러한 정책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문제와 연계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으며, 후진타오 주석은 남북간 대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 양국 정상은 지난 10년간의 협력성과를 기초로 한 차원 높은 관계로의 발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노 대통령은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양국 지도층 인사와 국민간의 상호 이해 확대와 신뢰 형성, 양국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기반 마련 및 양국간 교류·협력의 제도화 확대를 중점 추진하자"고 제의했고, 후진

타오 주석은 이를 환영했다.

이어서 노 대통령은 양국간 인적·문화적 교류 증진을 위한 구체적 협력사업으로서 먼저 양국 신정부하에서도 정상을 포함, 각계 지도층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하면서 후진타오 주석에게 한국을 방문하여 줄 것을 요청했고, 후진타오 주석도 이에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초청을 흔쾌히 수락했다.

정상회담은 새롭게 출범한 양국 새 정부의 지도자가 처음 갖는 회담으로서 대단히 진지하면서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조약서명식 임석 및 공동 기자회견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인민대회당 하북청으로 자리를 옮겨 '민사·상사 사법공조 조약'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분야 협력협정' '한국공학한림원과 중국공정원간 공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등 3개 조약 및 협정 서명식에 임석했다.

이어서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양국의 빛나는 발전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서 한·중 공동

번영을 위한 윈-윈 협력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후진타오 주석도 "한·중 우호관계가 양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 왔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가져왔다"고 화답했다.

국민만찬 및 공식 환영식

노무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와 함께 7일 저녁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주최한 국민만찬에 참석했다.

만찬은 중국의 관례에 따라 공식 만찬사 없이 진행되었으며, 노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오전의 정상회담 성과와 중국의 '사스(SARS)' 퇴치 노력, 한국의 시장개혁 추진 등을 소재로 대화를 나누었다. 만찬에는 운영관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하중 주중 대사 내외를 비롯한 공식수행원과 수행 경제인 대표 등 60여명을 포함, 양국의 주요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人民大會堂)의 동문 밖 광장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내외의 영접을 받고,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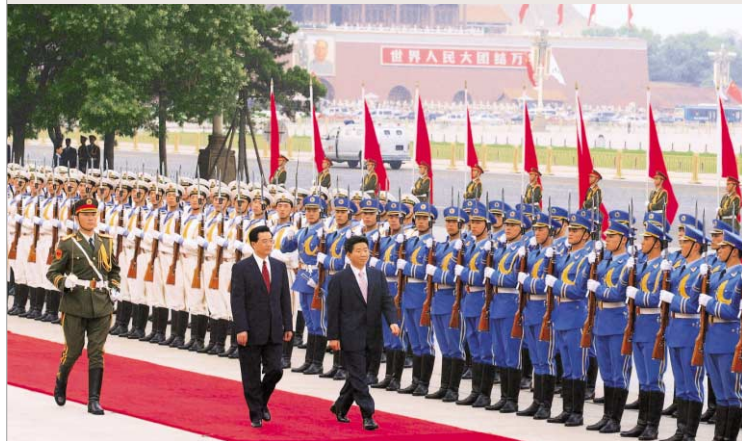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을 개방적으로 열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중국의 눈부신 성장이야말로 한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견해도 매우 강합니다.
 - 한·중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7. 7)



대 화

한·중 공동성명(전문)

한·중 공동성명



1 대한민국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초청으로 2003년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국빈방문하여 중국정부와 국민의 정중한 환영과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방문기간 동안 노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 쑹칭훙(曾慶紅) 국가부주석과 면담했다. 회담과 면담을 통해 양측은 한·중 우호협력 관계의 더 나은 발전과 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한 공동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식의 일치를 보았다.

2 한·중 양국 정상은 수교 후 11년 동안의 양국 선린우호협력 관계의 발전을 전반적으로 회고하면서 총결산하고, 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이 그간 현저한 성과를 거둔 데 대해 만족을 표명했으며, 이는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이 지역의 평화·안정 및 번영을 촉진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기여를 해 왔다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 및 기존의 협력 동반자 관계를 기초로 미래를 지향하여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선언했다.

3 양측은 각기 국내 정세 및 대외정책을 소개했다. 중국측은 한국정부가 경제발전과 한반도 및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측은 중국정부가 개혁·개방 및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여 거둔 성과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접국과의 선린·동반자 외교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4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북한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한국측은 북한 핵문제가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측은 북한의 안보우려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금년 4월 개최된 베이징회담이 유익했다고 인식했다. 한국측은 중국측이 동 회담 개최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하고 지지했다. 양측은 베이징회담으로부터 시작된 대화의 모멘텀이 지속돼 나가고, 정세를 긍정적 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희망했다. 중국측은 한국측이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를 위해 취해 온 긍정적인 조치들을 평가하고, 한국측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했다. 양측은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협조와 협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5 중국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했다. 한국측은 여기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것과 하나의 중국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6 양측은 한·중 고위층 교류 및 양국 정부, 의회, 정당간 교류가 양국간 전면적 협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하여 양측은 양국 지도자간 상호방문과 회동을 강화하고, 교류와 대화체제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7 양측은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을 더욱 확대·심화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되고, 양국의 공동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방향을 연구하기 위한 공동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양국간 무역의 건전하고도 순조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또한 무역을 확대하면서 균형을 이루어 나간다는 원칙하에 무역불균형을 개선토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상호이익과 우호적인 협의 정신에 따라 무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원만히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하여 양측은 양국간에 품질감독 검사·검역 협의체를 조속히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중 투자보장협정을 개정하여 양국 상호간 투자 확대를 위해 유리한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8 양측은 새로운 협력분야의 협력방식을 개발해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를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완성차 생산, 금융, CDMA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동 분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러한 분야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IT산업, 생명공학, 신소재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공동연구와 산업화 협력을 강화하고, 유통·자원개발 및 에너지·교통 등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환경보호와 환경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정부와 업계·학계 및 관련 단체들이 참가하는 '한·중 환경보호산업투자포럼'을 공동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황사 모니터링, 사막화 방지 및 생태계 건설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측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엑스포와 중국의 서부대개발 계획을 적극 지지했으며, 중국측은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했다.

9 양측은 '2002 한·중 교류의 해'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동 성과를 바탕으로 '한·중 교류제'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양국간 문화교류와 문화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양국간 교육·체육·언론 등 분야와 우호단체, 청소년 및 양국의 자매도시간 교류를 더욱 확대해 양국 국민들간 우호협력 기초를 튼튼히 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측은 중국 정부와 국민이 사스 퇴치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중국측은 한국측이 중국의 사스 퇴치 노력을 지지하고 지원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양측은 양국간 전염병 예방과 퇴치 등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양국 국민의 왕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양국간 항공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항공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영사 및 사법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법 집행 기관간 협의와 인적 교류를 확대해 양국 국민들의 정상적인 왕래를 위한 법적인 보장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중간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 '한·중간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 및 '한국공학한림원과 중국공정원간 공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중국측은 한국이 청두(成都)에 총영사관을 설치하는 데 동의했다. 양측은 이러한 조치가 양국 관계의 발전과 양국간 교류·협력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10 양측은 아·태 지역에서 부상하고 있는 역내 협력 과정의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아세안(ASEAN)+3' 과정을 통해 동아시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심화시켜 나가는 것을 지지하며 지역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중·일간 협력 강화가 동아시아 협력·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재 3국의 경제연구기관간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동연구가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했다.

양측은 유엔,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2005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마약, 국제 테러리즘, 금융·경제 범죄, 해적, 하이테크 범죄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를 포함한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1 양측은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성과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금번 방문이 향후 양국 관계의 장기적인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국측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편리한 시기에 후진타오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여 주도록 초청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초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세일즈 외교 및 주요 인사 접견

수행 경제인들과의 조찬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아침 숙소인 베이징 조어대(釣魚臺)에서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과 조찬을 함께 하고, 민간차원의 한·중 경제협력 증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교류, 투자, 기술협력 등 중국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며, 한·중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경제협력의 관계를 넘어서 동북아의 평화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하고, 정치적 평화와 안보적 관계 등 여러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앞서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중 교역관계가 급속한 양적 팽창을 수반하다 보니 갈등과 마찰도 야기되고 있는데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용성 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차 회장, 강동석 한전 사장 등이 참석했다.

우방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면담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우방귀(吳邦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장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 노 대통령은 “한·중간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 의회 지도자들의 선도적인 역할이 요청되며 양국 의회간의 긴밀한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방귀 상무위원장도 양국의 의회와 정당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증대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이를 통해 양국이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양국의 의회 차원에서도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방귀 상무위원장은 적극적인 공감과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 우방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면담 ▲ 쩡칭홍 중국 국가부주석 접견 ▲ 원자바오 중국 총리 면담

쩡칭홍 중국 국가부주석 접견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쩡칭홍(曾慶紅) 중국 국가부주석을 접견하고, 한·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한·중 관계는 지난 10여년 동안 외교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하고, 7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양국이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쩡칭홍 부주석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설명하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쩡칭홍 부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지도자들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쩡칭홍 부주석은 양국 관계의 발전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 면담 및 만찬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저녁 숙소인 베이징 조어대에서 중국의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를 면담하고, 이어 만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동북아 협력 구상을 설명하고, 무역과 투자 등 실질협력의 증진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원자바오 총리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충실한 발전을 위해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특히 차세대 이동통신(CDMA), 생명공학·나노기술을 비롯한 미래 첨단기술, 환경 산업, 금융 분야의 협력 등 ‘10대 경험사업’을 새로운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노 대통령은 또, 중국 중서부 지역을 관할범위로 하는 우리 정부의 주(駐) 청두(成都) 총영사관 설치계획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원자바오 총리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베이징 한·중 경제인 주최 오찬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8일 낮 베이징 조어대의 방비원(芳菲苑)에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오찬에 참석, 연설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중 교류는 미래지향적·호혜적 경제협력의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에너지와 자원개발, 금융, 환경, 차세대 IT 및 BT 등 미래 첨단기술 부문에서 양국 경제인들이 보다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서부대개발 사업’과 베이징 올림픽 및 상하이 엑스포 관련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동북아시아도 지역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는 협력 강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의 핵심국가인 한·중·일 3국간의 경제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찬에 이어 진행된 참석자들의 질의에 노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제조업 기지 해외 이전에 따른 국내 산업의 공동화 우려에 대해 “기술투자과 노동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한국은 이와 유사한 더 큰 도전과 시련을 거뜰히 극복해 왔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한국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조금도 경쟁력이 뒤



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인재들이 있으며, 시장개혁, 규제완화, 노사분규를 줄이는 일, 세금 감면 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환경에 대한 장애요인 해소노력을 들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과 공직사회의 대혁신, 획기적 지방분권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결국 한국이 이러한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중국의 눈부신 성장은 한국에 좋은 기회”라며, “중국과 한국 기업은 경쟁을 통해 서로 생산성을 높이고 협력해 나갈 때 모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완지페이(萬季飛)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과 쩡페이옌(曾培炎) 국무원 부총리, 마카이(馬凱)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주임 등 중국의 경제계 주요 인사와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양국 기업인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베이징 현대자동차 시찰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오후 왕치산(王岐山) 베이징 대리시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안내를 받아 베이징 순이(順義) 지역에 있는 한·중 합작 ‘베이징 현대자동차(사장 : 노재만)’를 시찰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 노무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중국 경제계 대표들을 접견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베이징시 당국이 현대자동차 공장의 건설과 생산활동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베이징 현대자동차가 한·중 산업협력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경영진과 관계당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베이징 현대자동차는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중국 중앙정부의 비준을 받아 설립된 최초의 자동차 기업으로서 지난해 12월 현지 첫 모델인 ‘소나타’ 승용차를 출시한 이래 올 상반기 생산목표인 2만대를 초과 달성했으며, 연말까지 5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이징 현대자동차는 중국 정부로부터 사스(SARS) 예방대책 최고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토착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소나타’는 200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6만 7천대 규모의 베이징 택시 시장에서 표준사양으로 채택되어 중국의 소비자들에게 세계 자동차 업체들의 각축장인 베이징시를 대표하는 차종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정 상하이 시장 접견 및 만찬

노무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와 함께 9일 오후 두번째 방문지인 상하이에 도착, 상하이 시내 금강호텔에서 한정(韓正) 시장을 접견하고 만찬을 함께 했다.

노 대통령은 한정 시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 한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있으며, 그런 만큼 상하이는 한국 국민에게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말했다. 또, 만찬사를 통해 “중국 경제성장의 상징인 상하이의 비약적인 발전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우리 기업의 2010년 세계박람회 관련 사업 참여 등 한국과 상하이의 경제·통상 관계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정 상하이 시장은 “2010년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서 상하이시와 한국 정부가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하이 한·중 경제인 초청 오찬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낮 숙소인 상하이 리츠칼튼호텔에서 한·중 경제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하이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 한국상회가 공동 주최한 오찬에 참석, ‘한·중간 네트워크 경제 이익 창출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주제로 연설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한·중 양국의 잠재력과 동북아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한·상하이의 협력 여지는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하고, 아시아 경제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두 지역이 새로운 산업을 공동 창출하고,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는 인력과 설비를 공유하는 협력의 틀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동북아 시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을 동북아 물류와 금융, IT, R&D의 허브로 만들고 역내 협력을 강화하여 이웃나라와 함께 공동 번영을 이루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 구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중 양국이 동북아 경제권을 양국 경제발전의 큰 축으로 삼아 상호존중과 호혜의 원칙 아래 협력해 나간다면 ‘규모의 경제’ 이익을 넘어 ‘네트워크 경제’ 이익을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CCTV 회견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오후 숙소인 베이징 조어대에서 중국 국영방송 CCTV의 시사 프로그램 제작자 겸 진행자인 수이쥘이(水均益) 앵커와 회견을 갖고, 한·중 관계 발전의 전망, 우리의 대북 정책과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회견내용은 7월 9일 저녁 CCTV의 대표적 시사 프로그램인 ‘초점방담(焦點訪談, 평균 시청자 2억명 추산)’을 통해 중국 전역에 방송되었다.



▲ 한정 상하이 시장과 경제·통상 관계 증진방안에 관해 대화하고 있다.

재중(在中) 한국인 초청 다과회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오후 베이징 시내 중국대반점(中國大飯店) 호텔에서 중국 각지에서 모인 중국 거주 한국인 단체와 기업 대표, 베이징 한국국제학교 관계자, 유학생 등 400여명을 초청, 다과회를 열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양국 관계의 발전은 물론 중국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중국 사회의 신뢰를 받으며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것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 “재중 한국인 사회가 1997년 외환위기 등 나라가 어려울 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재중 한국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 및 상하이 푸둥 지구, 동방명주탑 시찰

노무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와 함께 10일 오전 상하이 시내에 위치한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 독립투사와 애국선열들의 뜻을 기렸다.

노 대통령은 특히 김구 선생 흉상 앞에서 잠시 묵념을 한 뒤 2층 김구 선생 집무실로 올라가 침대와 탁자 등을 직접 만져본 뒤 방명록에 “독립운동의 전당에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기원



2002년 월드컵에서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을 했는데 중국인들도 베이징 올림픽과 상하이 엑스포를 치르면서 꿈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꿈은 한·중·일, 나아가 아시아, 전 세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 베이징 한·중 경제인 주최 오찬연설에서(7. 8)

대 화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이라고 기록했다. 노 대통령은 상하이시 당국이 임시정부 청사를 잘 관리해 오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이 청사건물이 한·중 우호 친선의 상징적인 유적이라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훌륭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상하이시 당국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상하이 경제발전의 중심지인 황포강 동쪽에 있는 푸둥(浦東)지구와 상하이시의 대표적 건축물인 동방명주탑(東方明珠塔)을 시찰하며 중국의 발전상을 체험했다. 노 대통령은 엘리베이터를 이용 90m의 전망대로 올라가

상하이시 및 푸둥 금융지구를 둘러보고, 한국과 상하이의 긴밀한 협력은 동북아 경제시대를 앞당겨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둥은 중국이 2030년까지 현대화된 공업기지와 금융·무역·과학기술·정보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 아래 개발 중인 곳으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우리 기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9일 밤에 상하이 외탄 및 푸둥 금융개발지구의 야경을 시찰했다.

베이징 한·중 경제인 주최 오찬연설 (2003. 7. 8)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존경하는 완지페이(萬季飛)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양국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어제 이곳에 처음 와서, 만 하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에도 역동하는 중국을 실감했습니다. 넘쳐나는 활력과 경이적인 발전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동북아 경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 지역은 전 세계 GDP의 20%, 교역의 1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존자원과 경제발전 단계에서 협력의 여지가 많은데다 역동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향후 세계경제의 중심 무대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무엇보다 중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성공적인 개혁·개방 정책으로 지난 20여년간 연평균 10%에 이르는 성장을 기록하며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의 개최는 중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드높일 것입니다.

한국 역시 이동통신, 디지털 가전,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강도 높은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은 지난 10여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서로간에 세번째 교역 상대국이 되었고, 지난해 교역규모는 4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중국이 우리 기업의 첫번째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양국간 문화교류도 '한류(韓流)'와 '한풍(漢風)'으로 표현될 정도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저는 어제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 회담을 갖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회담을 마치면서 한·중 관계의 발전은 물론 동북아 경제의 밝은 장래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확신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간 차원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입니다. 동북아 국가간 협력의 제 일선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는 협력 강화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 핵심국가인 한·중·일 3국간의 경제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올해 10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자는 중국의 제의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시작된 한·중·일 3국 연구기관간의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연구'가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경제협력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 심화되어야

이제 양국간 교류는 미래지향적·호혜적 경제협력 관계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아시아 경제의 발전과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도움이 되는 분야로 협력의 영역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에너지와 자원개발, 금융, 환경, 차세대 IT와 BT 등 미래 첨단기술 부문에서 양국 경제인들이 보다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서부 대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베이징 올림픽과 상하이 엑스포 관련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두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인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동안 동북아 지역은 이러한 지역 협력 움직임에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동북아도 지역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중국 경제의 성장은 한국에도 기회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도 동북아 경제협력과 안정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행히 지난 5월과 6월, 관련국간 정상회담과 G8 정상회의를 통해서 '북핵 불용'과 '평화적인 해결 원칙'에 대한 국제사회의 컨센서스가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관련국간 긴밀한 공조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랬을 때 한·중 협력은 물론 동북아 지역협력도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의 이익과 책임을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외개방을 가속화하는 한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은 한·중 두 나라 경제인에게 더 많은 협력과 사업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 강화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앞당길 것입니다. *연설문 요약



아무리 좋은 시대적·지리적 여건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만은 못합니다.
 - 푸둥신구 청사를 방문해서(7. 10)
 대통령의 (중국)방문이 여러분의 기업활동에 도움이 돼야 합니다... 평화가 확실하게 자리잡지 않은 곳에 경제번영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 수행 경제인 조찬간담회에서(7. 8)

대 화



상하이 한·중 경제인 초청 오찬연설 (2003. 7. 10)

한·중 경제발전의 큰 틀 구축



저는 오늘 오전 매우 의미 있는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 한 곳은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이 시작된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일제치하의 암울했던 시기에 독립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지난해 22만명에 이르는 한국 국민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상하이에는 임시정부와 함께 한국 국민의 가슴에 늘 희망의 이름으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 곳은 푸둥(浦東)입니다. '푸둥신구'를 둘러보면서 "중국의 미래는 상하이에 있고, 상하이의 미래는 푸둥에 있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 상하이는 개혁·개방 정책의 선봉에 서서 중국의 경제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두 자리 수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40여개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가 자리하고 있으며, 지난해만도 185억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중국 대학생들이 졸업 후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도시도 이곳 상하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하이의 성공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한·중 교역의 중심

상하이는 또한, 한국과의 교류·협력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500여개에 이르는 한국 투자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한국의 6개

도시와 직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중간 교역의 약 28%가 상하이 지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하이를 축으로 하는 '장강 삼각주 지역'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대 중국 투자 총액의 32%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기술산업 투자가 이곳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하이는 한·중 경제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하이는 한국의 여수와 함께 201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벌였습니다. 다시 한번 상하이의 엑스포 유치를 축하드립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 1993년 대전 엑스포, 2002년 월드컵대회와 같은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한 한국 기업들의 경험과 역량이 상하이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양국의 경제인 여러분!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시기에 새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바로 올해 2월과 3월의 일입니다. 또한 두 나라 국민 모두 젊은 지도자를 선택했습니다. 개혁과 변화에 대한 열정과 추진력이 강력하다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이러한 양국 사이의 특별한 공감대는 실질 협력관계를 더욱 활성화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양국의 잠재력과 경제협력 가능성,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미래를 생각할 때 협력의 여지는 무궁무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욱 넓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와 자원개발, 금융, 환경, 차세대 IT와 BT 등 미래 첨단기술 부문에서 보다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협력의 방식도 다양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시아 경제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새로운 산업을 공동 창출해 나가고,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는 인력·설비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의 틀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여러분의 협력이 더욱 증대되도록 최대한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사이좋은 이웃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 지역은 명실공히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총생산의 20% 이상이 동북아 지역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여년 후에는 30% 이상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동북아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 상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요충에 자리하고 있으며, 한국에 인천공항이 있다면 이곳에는 푸둥(浦東)공항이 있습니다. 부산항과 상하이항은 세계적인 컨테이너 항구로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모두 수준 높은 정보화 기반과 IT 능력, 그리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하이는 '3항(港) 2망(網) 프로젝트'와 2010년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세계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평화·번영을 위한 동북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한국을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 IT, R&D 허브로 만들고, 역내 협력을 강화해서 이웃나라와 함께 공동번영을 추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나아가 동북아 지역에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한·중 양국이 동북아 경제권을 양국 경제 발전의 큰 축으로 만들어 상호존중과 호혜의 원칙 위에서 서로 협력해 나간다면, 양적인 '규모의 경제' 이익을 확대함은 물론 질적인 '네트워크의 경제' 이익을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인 여러분!

맹자(孟子)는 "천시(天時)는 지리(地理)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人和)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대적 여건, 아무리 좋은 지리적 조건도 '긴밀한 협력'만은 못합니다. 상하이와 서울·부산, 중국과 한국이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사이좋은 이웃으로서 함께 전진해 나갑시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연설문 요약



“경쟁력 갖춰야 해외투자도 성공” 노 대통령, 수행원 간담회... “상하이는 지난 시절 서울과 비슷”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자기 계획을 가지고 국내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일수록 해외투자에서도 성공하고 국내에서도 성공한다”면서 “허겁지겁 해외로 간 기업들은 한국에서조차 근거지를 남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방중 나흘째인 이날 공식 수행원들과의 조찬에서 “제조업체의 74%가 한국에서 나가고 싶다고 한하는데 그 중 몇 퍼센트가 나갈 수 있으며, 나간 기업 중에서 몇 퍼센트가 성공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상하이를 둘러본 감상과 관련, 노 대통령은 “국내에서도 상하이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상황 이해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곳에 대해 지나치게 겁주는 경향이 있다”면서 “나는 지난 시절 서울의 발전 모습을 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가 시속 160km로 발전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나라가 발전하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서울 강남의 일부

지역도 10여년 전에는 허허벌판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상하이 푸둥지구를 보고 ‘천지개벽’이라 했었는데 서울에 와도 같은 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 배에 있는 가마니 하나만 내려놓아도 다른 배와 속도가 비슷해질텐데 우리는 그 가마니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다”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기존의 제도, 이에 대한 기득권 등의 고리를 끊고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난달 방문한 한국산업기술대학의 예를 들었다.

노 대통령은 “그곳에서는 생산업체의 요청을 받아 학생들과 교수들이 바로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에 들어간다”면서 “아주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단순한 질문에 답해가는 것이 기술혁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학교가 전국에 7~8곳만 있으면 우리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92호 / 2003년 7월 10일(목)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전 중국 최고 명문대학의 하나인 칭화(淸華)대학을 방문, 꾸빙린(顧秉林) 총장의 영접을 받고 쉰우지(周濟) 중국 교육부장(장관)과 교수,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중 협력'을 주제로 연설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등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이제 한·중 양국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보다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야 하며, 이는 양국이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동북아 지역은 이미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만큼, 여기에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비전, 새 패러다임을 정착시킨다면 동북아의 역사는 달라질 것이며, 예상

보다 훨씬 빠른 시일 안에 동북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의 경계를 허물어내고, 협력과 통합의 새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선 역내 대화와 교류를 늘려가며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하나 하나 실천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공동의 이익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 시대 실현을 위한 최대 관건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며, "북한을 어떻게 평화와 번영의 대열에 합류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국제사회의 어느 누구도 북한의 핵이 그들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보지 않으며,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대화와 공생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칭화대학 연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중 협력

오늘날 세계가 놀라고 있는 중국의 발전에는 칭화대 동문들의 땀과 열정이 배어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후진타오 주석께서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선배라는 점도 칭화대인들의 자부심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미래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저는 중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위대한 문화유산과 눈부신 경제발전, 그리고 근면하고 역동적인 국민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참으로 놀랍고 감명 깊습니다.

중국은 지금 2008년 올림픽과 2010년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 전반의 새로운 도약과 번영을 가져올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한국 국민들도 이 행사들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생각입니다.

5천년에 이르는 교류와 우호친선의 역사

한국과 중국은 다음달에 수교 1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와 후진타오 주석은 우리 양국이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것을 합의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해마다 가장 많이 찾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지난해에는 양국에서 모두 230만명의 국민들이 서로를 방문했습니다. 10년 전보다 열일곱 배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지금 3만 6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 열 명 가운데 네 명이 한국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여기 칭화대학에도 자랑스러운 '칭화 동문'이 되기 위해서 500명이 넘는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나라는 서로에게 세번째로 큰 교역상대국입니다. 지난해의 교역규모는 4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기업들에게 중국은 최대의 투자 파트너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활발합니다. 다음주에는 칭화대학과 한국 전자부품연구원 공동으로 추진해 온 '한·중 전자부품 산업기술 협력센터'가 문을 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미래 첨단분야의 협력은 앞으로 더욱 더 가속될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발전입니다. 그러나 또한 돌이켜보면, 한·중 관계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결코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5천년에 이르는 교류와 우호친선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 나라 국민들은 서로를 가깝게 느끼며 서로의 삶과 문화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한풍(漢風)'과 '한류(韓流)'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배우려는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어디를 가나 중국 상품이 넘쳐나기도 합니다.

서울의 지하철에서는 중국어 안내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장이머우(張藝謀) 감독이나 공리, 리밍 등은 우리 젊은이들이 다 좋아하는 스타들입니다.

중국에서도 '한류'가 큰 물줄기를 이루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의 가요나 영화, 드라마를 즐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김치도 인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치는 참 좋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김치만 좋은 식품이 아니고 김치 냉장고도 한국제가 참 좋습니다.

한·중 우호협력의 토양은 이처럼 두텁고, 그리고 비옥합니다. 문제는 이 비옥한 땅에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씨앗이냐에 따라서 20년, 30년 이후의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비전

저는 오랫동안 씨앗 하나를 간직해 왔습니다. 그것은 21세기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희망입니다.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날의 동북아시아는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되풀이해 왔습니다. 대륙과 해양 세력의 충돌, 동서양의 갈등, 동서진영의 이념적 대립으로 오랜 세월 불신과 반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고통을 받았고, 아직도 과거를 잊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경계심은 이 지역 국민들의 마음속에 아물지 못한 상처처럼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가장 무서운 사람은 우리 경호실입니다. 저는 경호실의 승낙을 받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칭화대학에도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그야말로 안전에 관한 한 우리 경호실이 저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 칭화대학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취임 후 개인자유의 제약'에 대한 질문에(7. 9).



대 화

칭화대학 연설

이제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합니다. 다시는 침략과 지배로 고통받았던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대립과 갈등의 상처를 치유하고, 협력과 통합의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끼리 경계하고 불신하는 동안에는 세계사의 흐름에서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국만의 이익, 소아(小我)의 울타리를 넘어서, 대동(大同)의 새 역사를 일구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벽을 허물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화해와 협력의 씨앗, 평화와 번영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미 반세기 전에 공동의 미래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평화와 번영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유럽연합(EU)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공동의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누리고 있습니다. 국가간의 경계도, 마음의 장벽도 이미 거의 다 허물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동북아시아에서도 이러한 평화와 번영의 미래가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은 서로 만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국민들은 만나면 처벌을 감수해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불과 십수년만에 오늘날처럼 한·중 관계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오늘을 만들어 왔듯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도 못했던 미래를 얼마든지 우리는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새 패러다임 공유

올해 들어서 한국과 중국에서는 모두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양국의 국민들이 저와 후진타오 주석처럼 젊은 지도자를 선택한 것은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요구도, 시대의 요구도, 이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조류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요한 흐름의 하나가 바로 ‘동북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과 중국은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다 진지하게 논의



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공동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향해서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 동북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GDP의 20%를 생산하고 있고, 10년이나 15년 후에는 30%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이 있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란한 문화적 전통과 무한한

잠재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공동의 비전, 바로 ‘평화와 번영’의 새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동북아의 역사는 그야말로 달라질 것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일 안에 유럽·북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경제의 3대 축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세계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그 동북아 시대의 생산과 투자, 금융과 물류, 정보와 기술이 모여 들고 퍼져 나가는 ‘번영의 허브(Hub)’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베이징의 학생들은 기차를 타고 평양과 서울, 부산을 거쳐서 도쿄까지 수학여행을 가는 시대, 평화롭고 풍요로운 동북아 시대의 한 모습을 우리 모두 함께 꿈꾸어야 합니다.

경제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한·중 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나라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함께 해 왔습니다.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된 인간중시의 사상이 라든지, 그리고 상생과 화합, ‘대동’의 세계관은 동북아시아가 공유하고 있는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미래지향적인 개방성’과 ‘협력지향적인 참여’의 가치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열고, 협력을 위해서 참여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면, 대립과 갈등의 역사는 종식되고 협력과 통합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선 대화와 교류를 꾸준히 늘려나가고, 구체적인 협력사업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신뢰를 쌓고 공동의 이익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IT, 에너지, 자원, 환경 분야에서의 지역 협력과 한반도에서 중국, 그리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의 실크로드’ 건설 같은 사업들이 그 좋은 시범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아세안(ASEAN)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논의하는 유익한 대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북한, 평화와 번영의 대열에 동참 기대

당면한 최대의 관건은 역시 한반도의 평화정착입니다. 북한을 어떻게 평화와 번영의 대열에 합류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개방을 통해서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국제사회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한·중 양국은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구성원도 주변국의 안보나 동북아의 안정을 해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와 공생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어느 누구도 북한의 핵이 북한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평화와 번영의 대열에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와 개방의 길로 나올 때, 국제사회는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북한도 동참하는 가운데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연설문 요약



대륙에서 돋보인 ‘유머 외교’

- 행사장마다 좌중 웃음바다... “정상외교 촉매제” -

“총영사 이름이 ‘주상해’ 인줄 알았어요.”

10일 오전 7시 30분(현지시간) 수행원 조찬간담회가 열린 중국 상하이 리츠칼튼 호텔 4층.

간담회장에 들어선 노무현 대통령은 자리에 앉자마자 건너편의 박상기 상하이 총영사에게 농담을 건넸다. 명패에 ‘주상해총영사’라고 쓰여진 것을 보고 던진 유머였다. 숨가쁜 일정 속에 다소 긴장된 상태였던 간담회장은 대통령의 한마디에 웃음바다가 됐다.

중국 방문 중 노 대통령은 시종 웃음을 잃지 않고 있다. 행사 도중 간간히 유머를 던져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9일 만리장성을 방문한 노 대통령은 관리소장이 “귀국하면 친구들에게 만리장성에 많이 갔다오라고 말해달라”고 하자 “내 친구들 중에 이곳에 안 와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랑하면 꼴찌로 갔다온 것을 자랑하는 셈이다. 대신 소장 과 사진을 찍어 자랑하겠다”고 말해 웃음이 번졌다.

칭화대 방문에서도 이같은 노 대통령의 유머는 빛을 발했다. 학생들과의 문답에서 대통령으로서 행동에 제약이 많아 답답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과거 캐나다 트루도 수상이 밤에 빠져나가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다 붙잡혀 왔던데, 청와대는 빠져나갈 구멍도 없다”고 말해 웃음이 터져 나왔다. 당초 연설 원고에 없던 한국산 김치냉장고를 홍보하면서 “김치냉장고에 맥주를 넣어서 먹으면 아주 좋다”고 말해 폭소를 유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의 이러한 유머는 행사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것은 물론 노 대통령의 발언에 흥미를 촉발하고 행사의 집중도를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일종의 ‘유머 전략’인 셈이다.

중국의 한 외교 관계자는 “가까이서 지켜 본 정상 중 가장 격의 없고 유머가 넘치는 분”이라며 “유머를 외교술로 활용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평했다.

- 제92호 / 2003년 7월 10일(목)



한·중 정상 공동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 모두 연설

나는 오늘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서 양국 관계 발전방향과 공동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정부가 그동안 기울여 온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아주 깊이 감사하고, 앞으로도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나와 후진타오 주석은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당사자간에 대화가 다시 시작돼야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와 후진타오 주석은 한·중 수교 이래 지난 11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양국 관계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향후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그동안 발전되어 온 양국 관계를 토대로 해 교역과 투자를 더욱 균형있게 확대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IT 등 첨단산업 발전, 그리고 중국의 서부 대개발사업에 협력하며, 에너지 개발, 환경협력, 베이징 올림픽 지원 등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교류·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주(駐) 청두 총영사관을 설치하고, 민사·상사 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영사관계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청소년 교류의 대폭 확대를 포함한 인적·문화적 협력 등 양국간의 전면적 협력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후진타오 주석과 함께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고, 동북아의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는 밝은 전망을 갖게 됐습니다. 나는 양국 정상간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서 후진타오 주석이 가까운 시일에 한국을 방문하시도록 초청했으며, 후진타오 주석께서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기자와의 일문일답

▶ 한국 새 정부가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그동안 한·중간의 교역은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고, 지금도 매년 20% 이상의 증가 속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교류를 계속 발전시켜 앞으로 5년 후에는 1,000억 달러 정도의 교역규모를 가지도록 양국 관계의 교류를 넓혀 나가자는 것이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상품의 교역은 낮은 수준의 교류·협력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무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자본과 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더 높고 긴밀하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해 장기적으로는 EU와 같은 경제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정상간에 IT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협력, 서부 대개발 사업, 그리고 환경산업에 있어서의 협력, 그밖에 열 가지 이상의 협력과제들을 놓고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경제 분야 이외에도 이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문화적·인적 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것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의 협력에 의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21세기 아시아의 질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과제입니다.

▶ 21세기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주제에 대해 양 정상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한·중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과제와 장애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대통령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질서에 대한 문제는 대체로 말 그대로 거시적 관점에서 포괄적인 의미로 인식을 함께 하고 또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한 절차와 과정까지 논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협의했던 경제협력에 관한 문제, 경제교류의 확대에 관한 문제라든지,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모두 그와 같은 구상에 밑받침이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보면서 우리에게 위기다, 예를 들면 세계 전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또한 한국의 많은 제조업이 중국으로 다 건너가서 “한국 경제가 공동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눈부신 성장이야말로 우리 한국에게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우 적극적이고 희망적으로 사고하는 견해 또한 매우 강합니다. 저는 중국의 발전이 우리 한국, 나아가 일본에게도 큰 기회라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동합니다.

오늘날 세계 교역의 대부분이 기술 선진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이웃나라가 발전하는 것은 기회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황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지만,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의지입니다. 위기라고 생각하고, 경계하는 인식을 가지고는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을 개방적으로 열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후진타오 주석과 저의 대화, 함께하신 정부 각료들과의 대화는 모두 이와 같은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로 경제에 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했지만, 앞으로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동아시아의 경제적인 측면이나 기타 모든 면에서의 당당한 등장, 이것이 중국과 우리 한국이 긍정적인 자세로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될 ‘우리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면 옆치락뒤치락 하다가도 벼랑 끝에 가면 싸움모습이 달라집니다.
가장 위험할 때 많은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국가간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일수록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 수행 기자단 조찬간담회에서 북핵 문제에 관한 질문에(7. 9)



대 화

주요 외신 보도

한·중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한·중 양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일치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지하고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중 수교 11년간 양국 관계는 전면적이고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각 영역에서의 양국간 교류·협력은 인심을 고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안정된 발전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하며, 한국은 양국간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특히 고위층 상호방문과 청소년 교류를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양국간 경제·무역 협력을 증진하고, 문화·교육·사회 등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중 양국간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베이징 주재 특파원 오찬간담회

- 중국 CCTV-1, 7월 7일 19시 뉴스

한·중 경제협력, 더욱 돈독한 관계를 구축해

한·중 수교 이래 양국간 무역구조의 상호 보완성과 인연·지연 및 문화 등 요소로 인해 한·중 양국간 무역은 이미 수교 당시의 20억 달러에서 지난해의 400억 달러로 성장했다. 금년 상반기까지 한·중 양국은 이미 서로의 제3대 무역상대국으로 되었으며, 사스(SARS)도 양국 교역의 성장을 막아내지 못했다. 중국이 SARS 퇴치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후 처음으로 중국에 도착한 해외 여행단체 역시 한국인들로 구성된

단체였다. 이어서 한국의 기업가들이 중국에 대한 상업적 고찰을 시작,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위해 선발대 역할을 하는 듯싶었다.

한국인들이 양국간 경제·무역 협력의 개척에 열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의 한 정부 관계자는 상하이 변화가의 빌딩을 보면서 중국 경제의 생명력에 대해서 감탄했고, 한국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5년 후에 한국은 아시아 경제에서 순위가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 중국 「해방일보」 7월 8일자

“북핵” 대화 해결로 환경 정비

한국이 7일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중시하고 있었던 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번째는 북한에 대해 ‘대화’보다도 ‘압력’으로 치우치는 국제정세에 대한 우려이다.

한국은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을 둘러싼 상황 악화에 강경 태도로 임할 것을 표명했다. ‘대화’ 일변도로부터 ‘압력’도 선택방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 왔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과도한 자극은 대화 가능성을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 한국의 본심이다. 미국의 유엔 안보리에서의 북한 비난 의장성명 채택을 향해 움직이던 중국은 더 이상의 ‘압력’은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번 대북 경제제재 등에 거리를 두는 중국과의 사이에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확인했다.

또 다른 이유는 다자간 협의에 대한 참가를 지향하는 한국의 의도이다. ‘핵문제 당사국’을 자인하는 한국은 자국을 제외하고 협의가 추진되는 것은 방치할 수 없다. 한국의 고위 당국자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미·중에 한·일 등을 참가시킨 ‘확대협’을 제기했다.

- 일본 「도쿄신문」 7월 8일자

한·중 양국, 대북한 협상 진전 모색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지도자들은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국제적인 대치국면을 종식시키기 위해 빠른 대북 협상 재개를 추진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재천명했으며, 지난 4월 시작된 3자 회담을 잇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북한의 핵문제에 관해 당사국들이 이른 시기에 직접협상을 재개토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어떤 나라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한국은 과거 6·25전쟁에 의용군을 파견했고, 지금은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부분의 원유와 식량을 공급하는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미쳐 진로를 바꾸게 할 것을 원하고 있다.

중국은 긴장을 해소시키기 위해 그동안 북한·미국·러시아·한국을 상대로 왕복외교를 하면서 전에 없이 활기차고 공개적인 역할을 해 왔다.

후진타오 주석은 현재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계속 활발하게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홍콩 「Asian Wall Street Journal」 7월 8일자

한국과 중국, 북한 핵 분쟁 중재 방침

한국과 중국은 북한 핵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7월 7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이러한 입장을 천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여러 차례 북·미간의 핵 분쟁을 중재하겠다고 자처했으며, 지난 4월에는 북한과 미국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처음으로 직접회담을 갖도록 주선했다.

- 독일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7월 8일자

한·중 경제인 오찬 연설

- 무역 교류, 영역이 넓고 잠재력이 크다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틀째 되는 오늘, 노 대통령은 한·중 경제계 인사 오찬간담회에서 연설을 했다.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한·중 양국에 더욱 많은 협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은 전 세계 GDP의 20%, 전 세계 무역 교역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북아에서 경제협력 발전의 공간은 무한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향후 동북아는 반드시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며,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실현이라는 공통된 이익과 책임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중 양국은 에너지, 금융, 환경보호,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등 영역에서의 더욱 긴밀한 교류와 협력관계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중국의 서부 대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베이징 올림픽과 상하이 엑스포를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 중국 「인민일보」 7월 9일자

교역증가와 함께 강화되는 한·중 관계

중국을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두 나라 사이의 경제관계



▲ 수행기자단 조찬간담회



강화를 추구하고 중국 지도자들과 가진 일련의 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와 교역문제를 중심 의제로 논의했다. 노 대통령은 쌍방 교역량은 400억 달러 이상으로 8배나 증가했다며 경제관계에서 이룩한 양국의 '눈부신 발전'에 찬사를 보냈다. 떠오르기 시작한 중국의 중산층은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한국산 물건을 가장 좋아하며,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한국의 철강과 화학제품 수요를 강력하게 자극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로 한국은 심한 국내 소비 침체와 세계 경기 둔화가 가져온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 금년 상반기 대 중국 수출은 140억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47% 증가했는데, 이는 대 미국 수출보다 7억 3천만 달러 적은 것에 불과하다. 노 대통령은 8일 전 세계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동북아시아 내의 경제협력 강화를 촉구하면서 북미와 유럽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일본·중국·대만이 하나의 무역 블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영국 「Financial Times」 7월 9일자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노 대통령이 중국 지도부와 논의중인 가장 주요한 현안은 당연히 북한 핵문제이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북한의 안전보장 등 중국측의 입장이 반영된 3대 원칙을 설명하고, 이러한 원칙이 한국과의 동반자 관계 설정 속에서, 특히 한반도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경제부문에서도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로 합의했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 등에서도 한·중간의 경제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 지도부는 향후 5년 동안 양국간의 교역 규모를 중·일 및 중·미간의 교역 수준인 1,000억 달러 선까지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밖에 한국측은 값싼 중국 상품과 비교되는 한국 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위안(元)화의 평가절상 정책을 중국측에 제안했다. - 러시아 「Kommersant Daily」 7월 9일자

노무현 대통령 방중외교 주요 일정

날 짜	주요 일정	날 짜	주요 일정
7월 7일(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출발 베이징 도착, 공항 환영행사 공식 환영행사 한·중 정상회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주최 국민만찬 	7월 9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 기자단 조찬간담회 만리장성 시찰 칭화(淸華)대학 연설 베이징 주재 특파원 오찬간담회 베이징 현대자동차 공장 시찰 상하이 도착, 공항 환영행사 한정(韓正) 상하이 시장 면담 및 만찬
7월 8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 경제인 조찬 우방귀(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면담 펑칭홍(曾慶紅) 국가 부주석 접견 한·중 경제인 주최 오찬간담회 CCTV 회견 재중 한국인 초청 다과회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면담 및 만찬 상하이 외탄(外灘) 및 푸둥 금융개발지구 야경 시찰 	7월 10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 푸둥지구 시찰 한·중 경제인 초청 오찬간담회 상하이 출발, 서울 도착

